

현지 공예품

깃코오리 직물과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

일본 각지에서는 다양한 직물이 발달해 왔습니다. 시즈쿠이시가 산지인 ‘깃코오리(亀甲織, 귀갑직) 직물’도 그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가마쿠라 시대(1185년~1333년)부터 메이지 유신(1868년) 때까지 이 지역을 다스렸던 난부번에 바치는 진상품으로 여겨 무사들이 애용했습니다. 삼의 재배부터 직조까지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직물에 거북이 등껍질과 닮은 육각형 무늬가 나타나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깃코오리 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성기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도 깃코오리 직물을 생산하는 기법에 능숙한 직조공이 적었기 때문에 널리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소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제조 방법이 도입되어 깃코오리 직물은 쇠퇴했지만, 지역 주민들에 의해 다시 부흥하여 이 독특한 직조 방식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1968년, 현지의 두 여성 가토 기와 씨와 가토 미쓰에 씨가 협력하여 기와 씨의 젊은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깃코오리 직물 재현에 임했습니다. 더욱이 미쓰에 씨는 시즈쿠이시에 이 공예품을 부활시키고자 깃코오리 직물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1985년에 ‘깃코오리 직물 연구회’를 설립했으며, 초대 회장으로서는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해 삼을 재배하고, 실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연구회는 1988년에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시즈쿠이시 삼 모임)’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5년에는 깃코오리 직물이 중요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기법은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의 구성원들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의 직조공이 시즈쿠이시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시연을 하고 함께 깃코오리 직물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민들은 농사를 지을 때 땀을 배출하기 위해 ‘아세하지키’라고 불리는 속옷을 착용했습니다(아세하지키는 시즈쿠이시 역사민속자료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깃코오리 직물의 원단은 땀 흡수에 적합하여 더운 계절에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깃코오리 직물의 뛰어난 기능성이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며 깃코오리 직물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요직기를 사용해 만드는 점도 깃코오리 직물의 특징입니다. 요직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짜낸 천을 허리에 감기 때문에 날실을 팽팽하게 당길 수 있으며, 날실 위에 씨실을 넣어 짤 때 직조공이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튼튼하고 탄탄한 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조공은 전신을 사용하여 짜기 때문에 체력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직기 대신 사용하기 쉬운 바닥 거치형 직기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깃코오리 직물은 귀중한 시즈쿠이시의

공예품입니다.

현재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에서는 시즈쿠이시 농업자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갓코오리 직물의 시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을 만들기 위한 삼의 재배 준비부터 갓코오리 직물 짜기까지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을 딴 후 잎을 제거하고 줄기를 찢낸 다음 말립니다. 그런 다음 전년도에 나온 삼 조각을 발효시킨 액체에 담급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를 꼬아서 실을 만들고,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염색한 후에야 직조공이 직물로 짜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수제 갓코오리 직물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제격입니다. 시즈쿠이시역 구내의 시즈쿠이시초 관광 물산 센터 등에서 책갈피와 가방, 테이블 러너, 플레이트 매트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보거나 체험해 보고 싶은 경우에는 관광 농산물 센터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